

# 뿌리 부실하면 맛난 열매 없어

인아산봉처(人我山崩處) 무위도자고(無爲道自高) 범유하심자(凡有下心者) 만복자귀의(萬福自歸依)

나를 버리면 스스로 도가 높아지고 내가 없는 가운데 하심하면 만복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나라에 것에 대한 집착, 내 것이라고 하는데 대한 집착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제대로 하심과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집착을 먼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야 진짜 하심이고 겸손이니, 그 자리에 만복이 깃든다고 한 것입니다. 아우름의 지혜가 부족할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진다. 세상을 다스리는 제도가 미비하면 문물이 혼탁해지는 것처럼 개인의 지혜가 부족하면 아슬아슬 보듬을 수 있는 여지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는 세상을 향해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물질문명의 발달과 개방지향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종교집단도 세상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고 더러 편승하기도 한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 불교계는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연기의 도리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행위를 결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술하게 연기적 질서를 얘기하면서 하는 행위는 그에서 벗어나 사바세상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으니 스스로 타들어가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떼거리로 밀어붙이는 세상이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기형화 될수록 나는 바르게 가야한다는 이념이 확고해야 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실이 있을 수 없고 궁극이 있을 수 없는데, 더러 목적의식은 간 곳 없고 방법에 낙착되어 본질을 잃는 것을 봅니다. 일의일발(一衣一鉢)의 정신은 꼭 한 벌의 옷과 바리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의일발도 소유할 수 있고 만의만발도 무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적(私的)인 입장에서 10원도 소유하고 공적(公的)인 개념에서 일억 원도 무소유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정월에 필요한 것이 있고 유월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 어디에 박혀 있느냐하는 것이니 진정한 무소유정신이 늘 성성적적 해야 합니다. 대만의 성운 스님이 한 번의 범회를 위해 대단히 화려하게 장엄하는 법석을 두고 누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장엄의 근본 의미가 송고하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은 계산에 의해 돌아간다. 계산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셈으로 따져서는 안 될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셈을 버려야 한다. 허정 스님은 셈을 하면 안 되는 관계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부부’를 꼽는다.

“부부는 셈을 떠난 한 덩어리입니다.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듬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물질에 대한 셈이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거



기서 갈등이 생기면 가정이 곤란 해 지는 겁니다. 부부간에 셈이 없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 발전 인류평화라는 거창한 소망들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간(根幹)을 살찌우면 지말(枝末)은 풍성해 집니다. 가정이란 근간, 부부라는 근간이 튼튼해야 합니다. 셈이 없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하니 그게 생활 속에서의 수행입니다. <신심경>의 첫 대목 ‘지도무난(至道無難) 유염간택(唯嫌揀擇)’의 도리를 잘 알았어요? 결국, 나(我)를 없애는 공부가 근본이 돼야 하고 연기의 질서에 거스르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모든 공부 가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인과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했다. 뿌리가 부실한데 화려한 꽃과 잘 익은 과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 하고 작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기대한다. 중생심에는 연기의 질서를 순종하기보다는 욕망의 성취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집착을 벗어던지는 길은 무엇일까? 허정 스님은 “참회(懺悔)하면 진리를 향해 가는 연기의 길이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독의 풀이 무성하게 자라 바른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명검은 수없이 달구고 두드리는 가운데 버려져 가는 것이다. 한 두 번의 탐금질로 잘 드는 칼이 만들어질 수 없다.

“하루하루의 삶이 자신을 달구고 식히고 두드리는 정진이 될 때 명품인생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심학산의 5월은 황홀지경이다. 도랑의 안과 밖을 구별할 것도 없이 꽃들이 가득 피어 있고 있들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며 울렁울렁 초록의 파도를 치고 있다. 그 초록을 배경으로 앉아계시는 약사여래께서는 가까이로 신도시 공사현장을 살피시고 멀리로는 오두산 전망대 넘어 개성 송악산 자락을 바라보고 계신다. 기도도랑의 너른 마당에 꽃그늘이 황홀하다.

글·사진-임연태(시인, 본지 논설위원)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92. 캄보디아 승왕 텡봉 스님

캄보디아 승왕인 텡봉 스님은 공산정권인 크메르루주 정권 몰락 이후 처음으로 노로돔 시아모니(Norodom Sihanouk) 국왕으로부터 최고 스님으로 추대된 캄보디아 불교계의 상징이다. 텡봉 스님은 크메르루주 정권 당시 평화운동을 펼쳤고, 해외에 있는 캄보디아 불자들에게 응기를 북돋아준 스님으로 유명하다.

우리가 찾은 메콩강변의 텡봉 스님 왕사(王寺)에는 300여 명을 훌쩍 넘는 스님들이 있어 교세를 짐작케 했다. 한국과의 불교교류에 큰 관심을 보여 온 텡봉 스님은 한국에서 방문객들이 왔다는 소식에 반갑게 우리를 맞았다.

텡봉 스님은 나이에 비해 많이 늙어보였다. 크메르루

이 됐다. 스님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호국불교와 전후 민중들의 삶에 어루만지는 불교의 역할을 화제로 진행됐다.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등과 국경을 접한 캄보디아는 그동안



풍교 손님에 맞는 일본 주정(酒井)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이 떠올랐다. 나는 텡봉 스님을 만나며 큰 스님에게는 상이 없음을 새삼 느꼈다.

대화 이후 스님은 시자들을 시켜 우리에게 왕사 구석구석을 안내했다. 왕사를 둘러보니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보낸 황소 청동상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前 국왕인 시아누크(Sihanouk) 공이 망명 중일 때 북한에서 도움을 받은 것을 인연으로 김일성 주석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 주석은 그 이후 불교에 큰 관심을 갖게 돼 북한 내 불교문화재를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일행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불교가 남북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해 마음이 흐뭇했다.

텡봉 스님은 저녁 무렵 캄

### 크메르루주 정권 하에 몰살된 불교 되살려

주 정권으로부터 받은 모진 고문의 영향도 있어보였다.

“이곳은 날씨가 더워서 빨리 늙습니다.”

텡봉 스님은 승왕의 신분에도 놓이 쉬운 말을 건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스님은 “캄보디아에서 융성했던 불교는 킬링필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죽고, 절에서 쫓겨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중흥의 과정에서 한국불교에게 배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스님은 승왕이 되기 전부터 해외에 망명한 스님들의 입국과 정착, 어린 사미스님들의 육성과 교육, 그 무엇보다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 나섰다. 크메르루주 정권 하에 문을 연 사찰이 하도 없던 캄보디아가 2만여 사찰과 6만여 스님들이 있는 불교국가로 거듭나기까지에는 스님의 활발한 활동이 밑거름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불교가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불교가 국교였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불국정도를 형성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최근 다종교 국가가 됐지만 다수의 불교인들은 찬란한 문화재를 보호하며 수행으로 불법을 펼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오간 후 스님은 “캄보디아와 한국은 닮은 점이 많은 불교의 형제국이다. 불국토를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캄보디아 최고 지도자임에도 스님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스님의 모습에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큰절을 같이 하는 하와이 고암 스님, 항상 무릎을

보디아 불교를 느껴보라는 취지에서 우리에게 캄보디아 승복을 보내왔다. 우리 일행은 캄보디아 승복을 입고 왕사 인근에서 탁발을 했다. 직접 겪어 본 캄보디아 인심은 진실로 순박했다.

우리는 피부색이 달랐지만 발우는 많은 음식으로 가득했다. 국민들의 승가에 대한 지지는 텡봉 스님과 같이 자신의 삶으로 불법을 보여준 스님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2009년 3월, 프랑스 식민지 시절 베트남에 불법 활양된 메콩델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당시 스님이 1주일 간 폭동이 일어난 지역을 순회하자 폭동은 평화로운 항거로 바뀌기도 했다.

공산 치하에서 모진 고문을 겪었지만 그 외중에도 국왕을 보필해 불제자로 이끈 텡봉 스님. 텡봉 스님은 캄보디아를 넘어 세계인들을 불국토로 묶는 우리 시대의 큰스승이었다.



아름다운연꽃!  
향기로운연꽃!  
집에서 키워 보세요.

보현선원에서 연꽃새싹을 불자님께 무료로 분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꽃 등 밝히듯 내 마음도 연꽃같이 되길 발원하며 예쁘게 키워 보세요.

'5월 14일(음, 4월 1일) 오전 10시' 부터 선착순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사월 초파일 연등 접수 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184-3 국악고등학교 정문 앞 보현선원 02)579-3690

“태양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진다. 항상 떠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즐겨라”

세계가 인정하는 특별한 영화!  
명사의 일상에 묻어나는  
진솔한 대화가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위대한 하루

# 선라이즈 선셋

SUNRISE/SUNSET

5월 13일, 전국 CGV와 primus 대개봉 www.prevision.kr

CGV 강변/상암/동수원/청주/대구/구미/울산/포항/마산/서면/동래 프리머스 원주/안동/칠곡

수입: 배급 프리비전 엔터테인먼트 \*전매권자가